



김주용 / 본회 비상근 부회장
현대전자산업(주) 사장

'93 전자산업의 회고와 우리의 자세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전자산업인으로서 '93년을 돌이켜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까지 침체의 늪에 빠졌던 우리 전자산업이 원기를 회복하여 국내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성장을 실현한 한해였다. 이러한 성과는 외부 환경적으로는 엔고 효과의 지속과 세계 경제 회복으로 인한 수출증가에 힘입은 바 있으나 무엇보다도 신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국민 모두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과 전자산업인 모두가 산업일선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땀 흘린 결과일 것이다.

올해 가장 괄목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반도체 분야일 것이다. 세계적인 공급부족 현상과, 경쟁국인 일본 업계의 투자 확대 지연, 미국 컴퓨터 관련 경기활성으로 국내 관련 업계 모두가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중 메모리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특히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전략적 제휴 등은 국내 반도체업체의 기술력이 세계 수준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컴퓨터, 통신 등 산업용 전자분야에서는 수출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의 침체, 경쟁력 약화 등으로 상대적인 저성장에 머물렀

다. 그러나 이처럼 지난해까지의 침체를 벗어나 전반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자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우리에게 더욱 새로운 다짐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거세지는 무역장벽, 무차별적 시장 개방을 물고 올 UR협상의 진전, 보호주의적인 지역경제의 강화가 우려되는 EC, NAFTA 등의 경제블록화, 동남아 후발공업국의 맹렬한 추격과 국내적으로는 내수시장의 둔화, 우리 상품 경쟁력의 약화 등의 험난한 파고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독자적 핵심기술의 확보일 것이다. 즉 세계의 어느 업체와도 겨루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을 통한 고급화, 국제화, 고부가가치화만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총성없는 세계 경제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술개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자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세계 전자시장의 비중을 볼 때 산업용기기의 확대 추세를 감안, 첨단

고정밀 산업용기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산업인 모두가 우리의 전자산업이 국가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능자가 된다는 것을 절대적 명제로 삼고 치밀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방법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전자산업이 국가 제1의 수출산업일 뿐만 아니라 고도정보화 사회를 구현하고 다른 산업에의 기술적 파급효과를 통하여 우리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을 가진 산업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단기적 처방이나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産·學·研·官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충분히 인식,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한국 경제의 견인차로서 국가의 성쇠를 쥐고 있는 전자산업의 위상을 더욱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전자산업계는 올해를 전자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향후 2~3년이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하에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